

환영사

안상영

(부산광역시 시장)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힘차게 뿌리내려갈 민선3기의 벽두에 우리 부산에서 「2002년도 지방재정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동건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오형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진정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보님과 전국에서 찾아주신 학계·공무원·의회 의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지방재정의 자율과 자립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요원할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네트워크화 되고 있습니다. 분산형 사회체제가 역사의 커다란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와 주민자치는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으로 연구·실천되는 사회적·역사적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도로·문화·환경 및 지역주민의 복지·후생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지출 비율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지방재정 운영 방식으로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는 지방화, 분권화, 주민자치의 요구에 더 이상 능동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을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중앙-지방의 관계 방식에 일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몇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학계와 행정자치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세미나가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지방분권형 재정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토론의 광장이 되길

4 환영사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시 또한 지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상황 평가 효율성 부문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던 성과와 노력에 박차를 가해 재정 건전화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더욱 높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머무시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건강하시길 빌며, 부산사람의 넉넉한 인심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는 9월 29일에 화려한 개막식을 하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7. 11.

부산광역시장 안 상 영